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저자: Edward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Alastair Paterson

각색: M. Maillot; Tammy S.


번역: Eun Ji Shim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0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홍수가 지나가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땅
위의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하늘에 바로
이르는 탑이 있는
큰 도시를 만들자.”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썼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 위에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셨다.



갑자기 사람들의 집단들은
서로 다른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이
이동했다. 아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그들이 남기고 간
도시는



혼돈의 뜻인
바벨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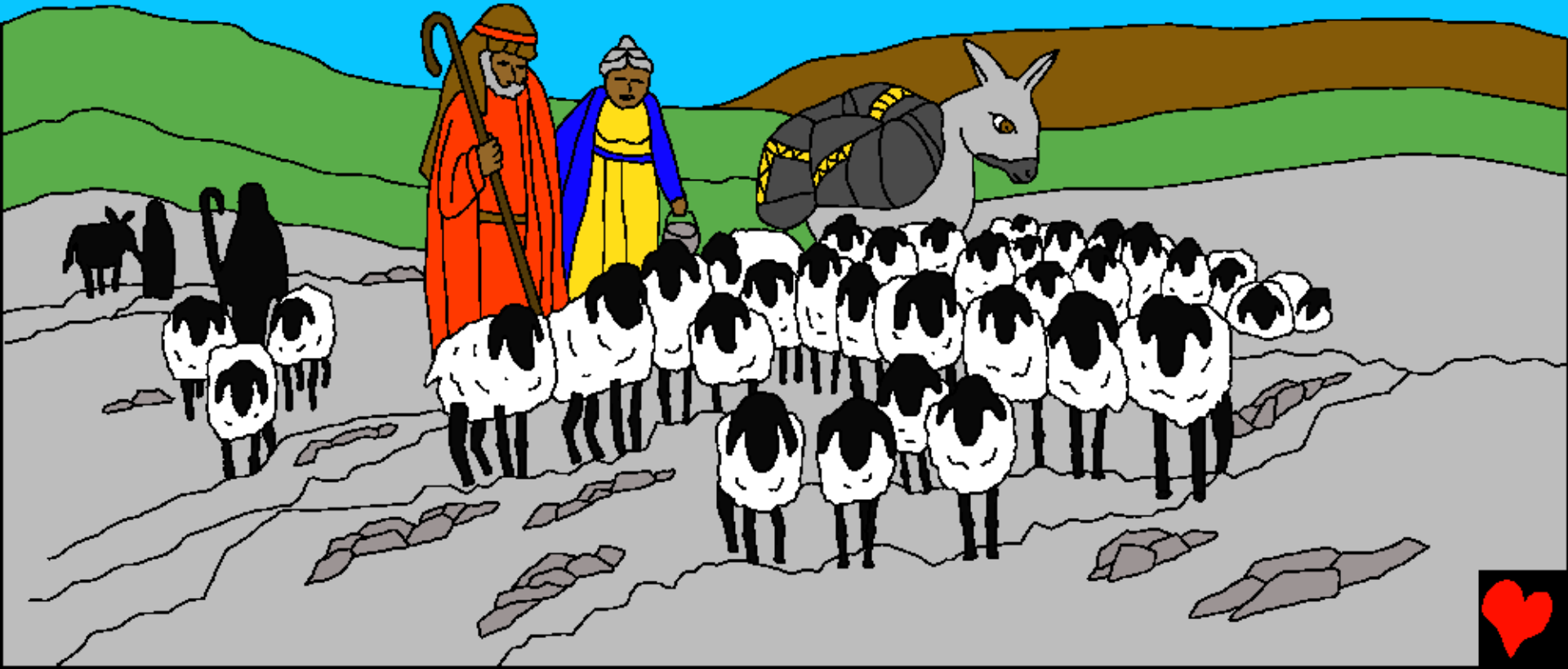
수 년 후, 갈대아의 우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라,
하나님께서서
명령하셨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그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복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 하셨다.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이 그와 함께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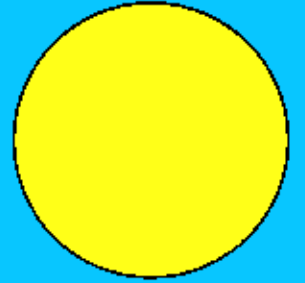
가나안에서, 아브람과 롯
모두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큰 무리의 가축을 가졌다.
그곳에는 많은 가축들을
위한 충분한 목장이



없었다.



롯의 목동은 아브람의 목동과
싸웠다. "이 문제를 해결 하자."
아브람은 말했다. "우리가
갈라지자." 롯,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 하여라."



롯데 도시들과 마을들이 많이
있는 풀이 우거진 큰 평원을
골랐다. 그것은 좋아 보였다.
하지만 도시들은
사악한 곳이었다.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브람과 사라는 아이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큰 약속을
지키실까?





하나님께서 보낸 세 사람이
아브람과 사래에게 왔다. “너는 곧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사래는 웃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90세 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는
사라 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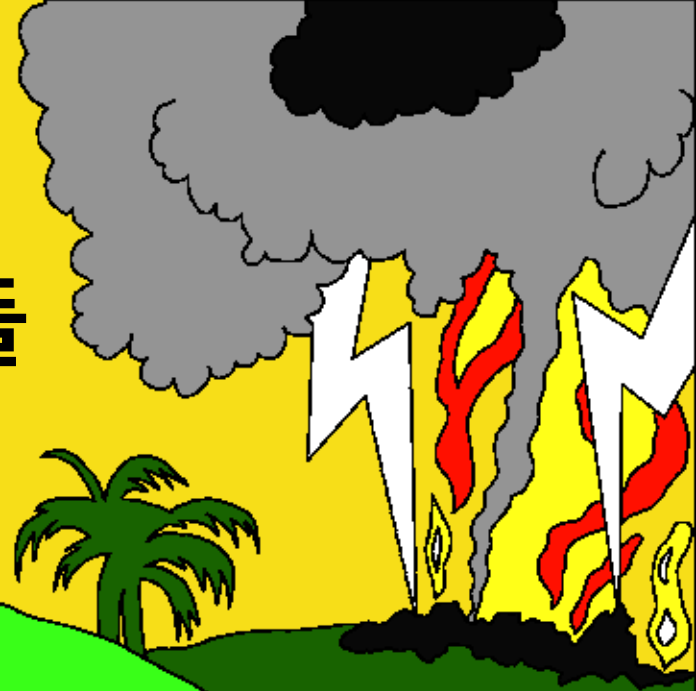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 하지만
그의 딸들의
남편들은
소동을 떠나길
거절했다.
얼마나
비극적
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롯과 그의 두 딸들만이
안전하게 그곳을 떠났다.
불과 유황이 사악한 도시들
위로 떨어졌다.



슬프게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불복종하고 그녀가
도망갈 때 뒤를 돌아

보았다.



그녀는
소금기둥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에
아이를 가졌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또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의



땅을 ...



... 영원히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또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21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